

SELIS OPAC에 있어서 키워드탐색의 이용과 이해*

The Use and Understanding of Keyword Searching in SELIS Online Public Access Catalogs

구 본 영(Bon-Young Koo)**

목 차

- | | |
|------------------------|--|
| 1. 서론 | 3. OPAC 이용자의 키워드 탐색의 이해 분석 |
| 1. 1 연구 목적 | 3. 1 분석대상시스템의 개요 및 키워드 추
출과 시스템의 구조 |
| 1. 2 연구 방법 | 3. 2 OPAC 이용자의 키워드 탐색의 이해
분석 |
| 1. 3 연구 문제 | 4. 결론 |
| 2. 이론적 배경 | 4. 1 요약 |
| 2. 1 기존연구검토 | 4. 2 제언 |
| 2. 2 OPAC의 키워드색인 | |
| 2. 3 OPAC 탐색에서 요구되는 지식 | |

초 록

이 논문의 목적은 SELIS(SEoul Women's University Library and Information System) OPAC 시스템에서 키워드와 불연산자 탐색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문제를 통하여 분석한 결과 SELIS OPAC 시스템이 처리하는 키워드 추출에 대한 이해도는 전체 298명에서 정답자 67명(22.48%)·오답자 231명(77.52%), 키워드탐색에서 불연산자 OR 사용에 대한 이해도는 전체 297명에서 정답자 115명(22.48%)·오답자 182명(77.52%), 키워드탐색에서 불연산자 AND 사용에 대한 이해도는 전체 296명에서 정답자 98명(33.11%)·오답자 198명(66.89%), 불연산자 사용방법 및 연산자 심볼에 대한 이해도는 전체 285명에서 정답자 109명(36.49%)·오답자 181명(63.51%)으로 전체적으로 이해도가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SELIS OPAC 시스템에서 키워드 탐색 경험에 따라 키워드 탐색 이해도가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한 결과 유의수준 5%에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불연산자 탐색 경험에 따라 불연산자 사용방법에 대한 이해도는 유의수준 5%내에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BSTRACTS

It i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to analyse users' understanding how keyword and boolean search work in SELIS(SEoul Women's University Library and Information System) OPAC.

Results of analyses of the subject, SELIS OPAC system processing, are:

comprehension percentage of keyword extraction is 67(22.48%) out of total 298 persons, no comprehension is 231(77.52%); understanding of boolean OR in keyword search appears 115(22.48%) out of 297, no understanding does 182(77.52%); comprehension of boolean AND is 98(33.11%) out of 296, no understanding appears 198(66.89%); understanding of using boolean and symbols is 109(36.49%) out of 285, no understanding is 181(63.51%) which is lower percentage generally.

And in SELIS OPAC system, in intentional analyses to see any difference in understanding of keyword search between experience of keyword search or no, it shows no difference in interrelation 5% level of significance, but in boolean search it does in interrelation 5% level of significance.

* 이 연구는 1999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교내 학술 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 서울여자대학교 경상정보학부 문헌정보학과 교수
접수일자 1999년 5월 1일

1. 서론

1.1 연구 목적

온라인목록은 나이, 언어, 문화, 주제배경과 컴퓨터전문기술, 그리고 정보가 서로 다른 다양한 정보 탐색자 집단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정보검색에 있어 늘 초보자들이다.

온라인목록은 카드목록설계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카드목록에 익숙한 도서관 이용자 세대를 온라인의 세계로 이끌기 위해,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수(手)작업에서 자동화 환경으로 설계된 레코드이다(Borgman 1996, 494). 그리고 자료에 대한 서지정보 및 위치정보, 대출 현황 등을 온라인으로 제공해주는 도서관 시스템의 한 모듈이다.

온라인목록의 1, 2 세대는, 기존의 카드목록에서 제공한 동일한 데이터나 레코드구조와 접근점을 사용하고 있어, 친숙한 카드목록모형을 따르면서, 정보검색시스템인 불연산자 탐색모형과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더 많은 접근점, 탐색능력, 화면선택사항을 추가시키고 있다(Hildreth 1987, 1993). 즉, OPAC의 레코드구조와 내용, 탐색 가능한 주요필드는 카드목록모형을 따르고 있는 반면, 탐색기능과 많은 인터페이스설계 특징들은 검색시스템모형에서 비롯된 것이다.

현재의 OPAC은 초기 2세대목록 보다 사용하기 더 쉬운 이용자 인터페이스를 개발하여, 복잡하고 난해한 탐색명령어 구문의 요구사항 대신, 메뉴선택 또는 화면프롬프트, 단순화된 탐색명령어(예: "T"서명탐색, "K"키워

드탐색)으로 대체 시키고 있다. 더 나아가 현재 사용하는 GUI(Graphic User Interface: 그래픽 이용자 인터페이스) OPAC 인터페이스는, 탐색자들이 간단한 포인트 클릭조작으로 실행할 수 있게 되어있다.

그러나 Hildreth는 GUI OPAC의 인터페이스의 내면을 살피고, 그 기능성과 검색효율성의 원리를 다시 평가하면서, 기능적인 면보다 단지 그래픽으로 인한, 표면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그래픽 이용자 인터페이스의 발전에 따라, 온라인목록이 쉬워진 것 같으나 탐색자는 아직도 효율적인 탐색을 실행하고 있지 못하다. 그 이유는 OPAC의 서지적 검색시스템이, 어떻게 키워드와 불연산자 탐색을 처리하는지에 대하여, 이용자가 이해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서지적 검색시스템의 키워드 추출 및 처리, 불연산자 탐색처리와 같은 지식이, OPAC의 성공적인 탐색에 중요한 요소인가? Borgman은(Borgman 1996, 495) 온라인목록에서 탐색의 복잡한 요소를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OPAC 검색시스템에서 효과적인 탐색을 위해 요구되는 지식의 종류를 제시하였다. 키워드에 의한 효과적인 탐색은, 색인의 형태와 색인의 내용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며, 불연산자 질의를 명확하게 하는 탐색용어의 조합방법에 대한, 개념적 지식과 그리고 특정시스템이 불연산자 질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어의적 지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념적 지식과 어의적 지식의 부족이, 탐색수행의 실패 요인으로 제시되었다(Hildreth 1997, 53).

이 논문의 목적은 SELIS(SEoul Women's University Library and Information System) OPAC 시스템에서 키워드와 불연산자탐색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 즉, SELIS OPAC에서 키워드와 불연산자탐색 처리시, 용어매칭과 용어조합이 어떻게 조합되는지에 대한 이용자 이해를 분석하는데 있다.

1.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2세대 OPAC 시스템에서, 키워드와 불연산자 탐색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도를, 질문지 분석을 통하여 알아보고, 키워드탐색과 불연산자 탐색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용자에게 필요한 지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1. 3 연구문제

본 연구는 서울여자대학교의 온라인목록 시스템인 SELIS(SEoul Women's University Library Information System)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의 키워드 불연산자 탐색의 이해정도에 관하여 아래의 연구문제를 통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1) SELIS OPAC 시스템이 처리하는 키워드 추출에 대한 이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키워드 탐색에서 불연산자 OR 사용에 대한 이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키워드 탐색에서 불연산자 AND 사용에 대한 이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4) SELIS OPAC 시스템에서 적

용되는 불연산자 사용방법 및 연산자 심볼에 대한 이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5) SELIS OPAC 시스템에서, 키워드탐색 경험에 따라 키워드 검색 이해에 차이가 나는가?

연구문제 6) SELIS OPAC 시스템에서, 불연산자탐색 경험에 따라 불연산자 사용방법에 대한 이해에 차이가 나는가?

2. 이론적 배경

2. 1 기존연구검토

OPAC 시스템의 키워드탐색의 전반적인 활용성을 보고한 최근의 분석과 연구는 Joan M. Cherry와 Joy Tillotson 그리고 John Akeroyd와 Charles R. Hildreth에 의해 발표되었다.

OPAC의 이용자와 정보검색시스템의 연구는, 1985년과 1995년 사이에 발표되었다. Lay R. Larson, Charles R. Hildreth, Tschera Harkness Connell, Rosemary Thorne, Jo Bell Whitlatch, Diane Ivahl, Carol Tenopir, Arnanda Spink, Stephen Walker, Micheline Hancock - Beaulieu는 그들의 연구에서 2세대 검색시스템의 사용에 있어서, 이용자 탐색 행동, 요구, 사용시 어려운 점등, 이용자가 2세대 OPAC 과 정보검색(IR) 시스템 사용에서, 불 연산자의 적용과 이해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Hildreth 1997, 52).

기존 연구에 의하면 온라인 목록의 탐색은 복잡하고 순차적이며 상호적이고 동적이다. 이러한 점은 결과보다는 과정에서 더욱 그러하다고 지적하였다. Allen은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 구조의 전문화된 개념과 절차적인 지식에 대하여 연구하였고, 이것은 하나의 개별적인 주제나 범위의 지식보다는 정보검색(IR) 시스템과 OPAC에 있어서, 효과적인 검색에 더 깊이 관련된다고 보고하였다(Allen, 1991).

이러한 연구의 결과로 인하여 초기 2세대 온라인 목록보다 더 사용하기 쉬운 OPAC이 개발되었다. 그리하여 이용자 인터페이스 개발초기에는 복잡하고 난해한 탐색 명령어 구문 요구사항이, 메뉴선택 혹은 화면 프롬프트와 단순화된 탐색 명령어(예 : "T" 서명검색 "K" 키워드 검색)로 대체되었다.

더 나아가 최근에 GUI OPAC 인터페이스는, 탐색자들의 간단한 포인트 클릭조작으로 실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인터페이스에 대한 급진적인 변화 뿐, 기본적인 기능성은 이전과 여전히 같다고 할 수 있다. Hildreth는 GUI OPAC의 연구에서, 인터페이스의 내면을 살피고 기능성과 검색 효율성의 원리를 재평가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현재 OPAC에서 제공되고 있는 "주제 키워드 탐색" 또는 "모든 접근점 탐색에서의 키워드 탐색" 방법은, 탐색자들이 목록 데이터베이스 구조의 기본지식과 키워드 탐색 시 검색 쿼리를 구체화하는데, 필요한 색인탐색의 기본 지식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OPAC 이용자들이 불연산자 탐색을

할 때, 탐색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불연산자가 상용시스템에 내장되어 처리되도록 만든 시스템이 많다. 그러나 Aananson 과 Hancock - Beaulieu 보고에 의하면, 불연산자와 인접연산자, 내장연산자 그리고 단일 질의어에 있어서 복합 불연산자의 실행순서에 따라서 다른 시스템과 큰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오늘날의 OPAC은 사용하기 쉽게 하는 이용자 인터페이스 측면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서들과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지식 즉, OPAC 시스템이 키워드와 불연산자 탐색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개념적, 어의적 지식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2. 2 OPAC의 키워드색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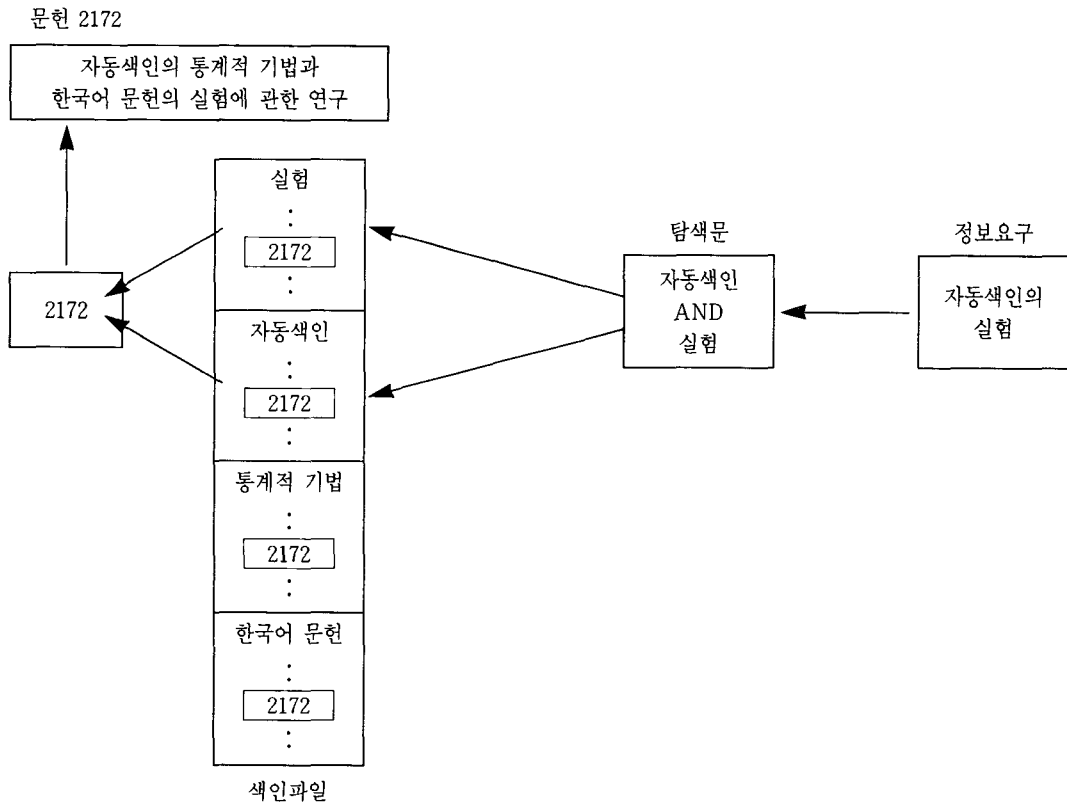
키워드색인의 원리는 문헌의 주제개념을 나타내는 키워드를 문헌의 표제, 초록, 또는 본문에서 추출하거나 따로 부여하여 색인하는 것으로 검색 시 이 키워드들을 조합하여 공통되는 문헌을 검색한다. 키워드색인에서 사용하는 검색기법은 불연산자에 의한 검색이 주를 이루고 있다.

키워드를 색인어로 하는 후조합색인에서는 원칙적으로 키워드 하나 하나가 문헌의 주제와 관련된 개개의 개념을 표현하는 것으로 문헌의 전체 주제는 키워드를 조합함으로써 표현하게 된다. 열거형 분류시스템이나 전통적인 주제명색인에서는 하나의 색인표목속에 문헌의 전체 주제를 구성하는 주요 개념들의 관계가 이미 정의되어 있지만 키워드색인(후조합 색인)에서는 개념간의 관계는 표출되지 않으

며 각 개념은 어느 개념과도 연결될 수 없다. 키워드는 단어뿐만 아니라 복합어도 포함하는데 문헌에 나타난 형태 그대로를 색인으로 채택할 경우 자유키워드(Free Keyword)라고 하며 통제어휘집에 의해 통제해 줄 경우에는 통제키워드(Controlled Keyword)라고 한다.

색인어 선택시 통제가 가해졌는가의 여부에 따라 자연언어색인(natural language indexing)과 통제언어색인(controlled language indexing)으로 구분하는데 키워드 색인은 자연언어색인에 속한다. 자연언어색인의 원리에 따르면 정보자료속에 나타나 있는

형태 그대로의 용어를 색인으로 채택하거나 색인자가 임의로 색인어를 주게 되므로 같은 개념이 여러 개의 다른 용어에 의해 표현될 가능성이 있다. 같은 어간을 갖는 용어라 할지라도 어형의 조절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검색시 특정한 개념을 표현하는 모든 용어를 탐색어로 사용하지 않는 한 재현율의 저하를 가져오게 되며, 또한 동음이의어를 조절하지 않음으로써 정확율의 저하가 일어나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용어의 절단과 조합탐색을 통해 검색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 또한 탐색시 탐색용 시소러스나 동의어 사전을 참고하여 동의어, 철자변형, 약어등을



<그림 1> 키워드색인 파일의 검색과정

파악하고 관련된 모든 용어를 탐색어로 사용함으로써 검색효율을 높일 수 있다.

키워드색인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자동색인의 통계적기법과 한국어문헌의 실험에 관한 연구' 라는 논문을 색인할 때 색인어로 "자동색인, 통계적기법, 한국어문헌, 실험"의 네 개의 키워드를 선택하였다고 하면 이 논문의 번호는 위의 각 키워드를 키로 하는 색인레코드에 다른 논문번호들과 함께 수록되어 도치색인 파일을 구성하게 된다. 위의 논문은 자동색인의 실험, 한국어 문헌의 실험, 자동색인의 통계적기법에 관한 실험등에 관한 정보요구가 있을 때 검색된다. 이 과정을 그림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정영미 1993, 51-100).

2. 3 OPAC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지식

본인의 OPAC에 있어서 키워드/불연산자 탐색에 대한 이용자 지식수준 연구에서 키워드 탐색의 특성(단일 키워드 사용과 복합어 키워드의 사용시 색인에 대한 지식), 키워드 탐색시 불연산자의 사용방법, 키워드가 시스템에서 처리되어 추출되는 색인, 불용어리스트, 키워드 탐색기법(전방일치)을 이용자에게 필요한 지식으로 제시하였다(구본영 1998, 269).

보르그만은 온라인목록탐색형태의 초기분석(Borgman 1986, 133)에서 탐색의 기계적인 면에 관한 지식(입력하는 탐색용어의 구문과 어의법, 탐색구성, 시스템을 통한 처리)과 개념적인 면의 지식(탐색의 이유, 접근점 사용, 탐색결과의 축소)을 언급하면서 이용자는 개

념적인 면이 이해되었을 때는 시스템을 완벽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 후 10년 이상의 연구 결과로 온라인목록 탐색에 요구되는 지식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 지식을 제시하였다.

첫째, 정보검색과정의 개념적 지식(정보요구를 탐색 가능한 질의어로 바꾸는것)으로 탐색자에게는 다양한 개념으로 탐색문이 구성될 때 어떻게 탐색용어가 조합되는지에 대한 개념적 지식이 필요하다.

둘째, 주어진 시스템에서 질의어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어의적 지식(시스템특징을 언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으로 온라인목록에서 탐색문은 순차적인 입력으로 이루어지는데 실행명령어 접근점, 필드태그, 불연산자의 사용단계를 거친다. 탐색용어의 선택사항은 2세대 온라인목록의 도입으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그것은 접근점의 키워드 탐색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또한 온라인목록에서 탐색용어는 탐색자의 연산자의 사용으로 혹은 시스템내의 내장된 값(Default)으로 불연산자로 조합되어 탐색된다. 따라서 이용자들이 불연산자 탐색을 할 경우 탐색어들이 어떻게 조합되는지 개념적 지식과 시스템에서 불연산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어의적 지식이 필요하다.

셋째, 질의어를 실행하는 과학기술적 기법(기본적인 컴퓨터 기술과 탐색문을 상세화 시켜 질의어를 입력하는 구문법)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질의어를 수행하는 이용자는 탐색문을 공식화하고 상세화할 수 있는 과학기술적 기법이 필요하다. 특히, 온라인목록 이용에서는 기본적인 컴퓨터 개념과 시스템의 명령

어에 관한 과학기술적 기법이 요구된다. 또한 온라인목록 탐색에 있어서의 지식과 기술은 가장 일반적인 것에서 시작하며 위의 세 가지 단계가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Borgman 1996, 495-499).

PC를 통한 검색 ② Internet을 통한 검색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명 : GLOGATE) ③ Internet의 WWW을 통한 검색 (CGI 검색) 의 세 가지로 운영되고 있다. 그 밖의 SELIS 시스템에 대한 개요는 본인의 앞 논문에서 밝히고 있다(구본영 1998, 261).

3. OPAC 이용자의 키워드 탐색의 이해 분석

3. 2 OPAC 이용자의 키워드 탐색의 이해 분석

3. 1 분석대상시스템의 개요

SELIS는 다양한 검색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어 인터넷과 연결되는 어느 곳에서든지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인터넷 전용 검색 프로그램인 Glogate는 본교 뿐 아니라 국내 20여개 대학과 연결되어, 상호 정보의 검색과 교환이 가능하며, 별도로 운영하는 웹 서버에는, 홈페이지에 도서관 이용 안내와 함께 웹 브라우저를 통한 검색시스템도 제공하고 있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AS를 이용하였으며 분석기법으로는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과 카이스퀘어(Chi-Square) 분석을 하였다.

검색 시스템은 ① 도서관 자료 검색 전용

1) 조사기간

1999년 4월 1일부터 5월 21까지 오전 10-1시, 오후 2시-5시 두 차례를 정하여 서울여대 SELIS OPAC시스템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2)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조사기간 동안에 SELIS OPAC 시스템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에 응답한

〈표 1〉 조사대상

조사대상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대학원	교직원	교수	전체
명수	94명	87명	49명	58명	4명	7명	1명	300명
빈도	31.3%	29%	16%	19.3%	1.3%	2.3%	0.3%	100%

〈표 2〉 키워드 탐색의 사용여부

키워드탐색의 사용여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대학원	교직원	교수	합계
예	68명 22.67%	68명 22.67%	47명 15.67%	53명 17.67%	4명 1.33%	7명 2.33%	1명 0.33%	248명 82.67%
아니오	26명 8.67%	19명 6.33%	2명 0.67%	5명 1.67%	0명 0%	0명 0%	0명 0%	52명 17.33%
전체	94명 31.33%	87명 29.0%	49명 16.33%	58명 19.33%	4명 1.33%	7명 2.33%	1명 0.33%	300명 100%

〈표 3〉 불연산자의 사용여부

불연산자의 사용여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대학원	교직원	교수	전체
예	10명 3.38%	8명 2.70%	20명 6.76%	15명 5.07%	1명 0.34%	5명 1.69%	1명 0.34%	60명 20.27%
아니오	83명 28.04%	77명 26.01%	29명 9.80%	42명 14.19%	3명 1.01%	2명 0.68%	0명 0%	236명 79.73%
전체	93명 31.42%	85명 28.72%	49명 16.55%	57명 19.26%	4명 1.35%	7명 2.36%	1명 0.34%	296명 100%

* Frequency Missing = 4

〈표 4〉 불연산자 사용 후 검색결과의 만족도

불연산자사용후 검색결과의만족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대학원	교직원	교수	전체
사용후 검색결과에 더 만족한다.	13명 8.28%	9명 5.73%	8명 5.10%	7명 4.46%	1명 0.64%	4명 2.55%	1명 0.64%	43명 27.39%
사용후 검색결과에 만족하지 못한다.	5명 3.18%	8명 5.10%	8명 5.10%	5명 3.18%	0명 0.00%	2명 1.27%	0명 0.00%	28명 17.83%
사용전이나 사용후 별차이가 없다.	24명 15.29%	24명 15.29%	14명 8.92%	23명 14.65%	0명 0.00%	1명 0.64%	0명 0.00%	86명 54.78%
전체	42명 26.75%	41명 26.11%	30명 19.11%	35명 22.29%	1명 0.64%	7명 4.46%	1명 0.64%	157명 100%

* Frequency Missing = 143

〈표 5〉 SELIS 사용 후 검색결과의 만족도

SELIS사용후 검색결과의만족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대학원	교직원	교수	전체
아주만족	0명 0.00%	0명 0.00%	0명 0.00%	2명 0.75%	0명 0.00%	1명 0.38%	0명 0.00%	3명 1.13%
만족	26명 9.81%	10명 3.77%	9명 3.40%	14명 5.8%	0명 0.00%	4명 1.51%	0명 0.00%	63명 23.77%
보통	48명 18.11%	59명 22.26%	23명 8.68%	31명 11.70%	3명 1.13%	2명 0.75%	1명 0.38%	167명 63.02%
불만족	6명 2.26%	7명 2.64%	10명 3.77%	4명 1.51%	1명 0.38%	0명 0.00%	0명 0.00%	28명 10.57%
아주 불만족	2명 0.75%	1명 0.38%	1명 0.38%	0명 0.00%	0명 0.00%	0명 0.00%	0명 0.00%	4명 1.51%
전체	82명 30.94%	77명 29.06%	43명 16.23%	35명 22.29%	4명 1.51%	7명 2.64%	1명 0.38%	265명 100%

* Frequency Missing = 35

학생은 학부생 1학년 94명, 2학년 87명, 3학년 49명, 4학년 58명, 대학원생 4명, 교직원 7명, 교수 1명으로 모두 300명의 설문지가 수집되었다.

설문분석을 위한 조사방법으로는 조사기간과 시간대에 SELIS OPAC을 이용한 이용자에게 접근하여 설문지를 배부한 후 설문에 답하도록 하였다.

3) 키워드 탐색의 사용여부
 키워드 탐색의 사용여부는 전체 300명 중 1학년 68명(22.67%), 2학년(2.67%), 4학년 53명(17.67%), 3학년 47명(15.67%)순으로 나타났으며 1, 2학년의 경우가 3, 4학년 보다 키워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불연산자의 사용여부
 불연산자의 사용은 전체 296명 중, 사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 60명(20.27%)과 사용 경험이 없는 응답자 236명(79.73%)으로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로 연산자의 사용이 저조한 것을 알 수 있다.

5) 불연산자의 사용후의 검색결과에 만족도
 불연산자 사용 후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결과에 더 만족한다 43명(27.39%), 만족하지 못한다 28명(17.83%), 별 차이가 없다 86명(54.78%)로 분석되었다.

6) SELIS 사용 후 검색결과에 대한 만족도
 SELIS 사용후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사용 후 검색결과에 만족한다 43명(27.39%), 만족하지 못한다 28명(17.83), 사용전이나 사용후 별차이가 없다 86명(54.78%)로 분석되었다. 이용자들이 SELIS OPAC에 대한 효과적인 탐색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표 6> SELIS OPAC에서 성공하지 못한 이유

검색에 성공하지 못한이유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대학원	교직원	교수	전체
SELIS의 정확한 이용법을 몰라서	35명 12.77%	36명 13.14%	22명 8.03%	25명 9.12%	2명 0.73%	2명 0.73%	0명 0.64%	122명 44.53%
찾고자 하는 자료가 없어서	23 8.39%	24명 8.76%	12명 4.38%	16명 5.84%	2명 0.73%	1명 0.36%	1명 0.36%	79명 28.83%
정확한 서지사항을 몰라서	22명 8.03%	20명 7.30%	9명 3.28%	7명 2.55%	0명 0.00%	3명 1.09%	0명 0.00%	61명 22.26%
기타	4명 1.46%	1명 0.36%	4명 1.46%	2명 0.73%	0명 0.00%	0명 0.00%	0명 0.00%	12명 4.38%
전체	84명 30.66%	81명 29.56%	47명 17.15%	50명 18.25%	4명 1.46%	7명 2.55%	1명 0.64%	274명 100%

* Frequency Missing = 26

<표 7> OPAC 검색으로 문헌을 찾지 못한 경우

OPAC 검색으로 문헌을 찾지 못한 경우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대학원	교직원	교수	전체
카드목록 이용	11명 3.89%	9명 3.18%	4명 1.41%	12명 4.24%	0명 0.00%	2명 0.71%	0명 0.64%	38명 13.43%
직접서가에서 검색	44명 15.55%	40명 14.13%	19명 6.71%	20명 7.07%	2명 0.71%	0명 0.00%	0명 0.00%	125명 44.17%
온라인 목록 재 검색	16명 5.65%	19명 6.71%	17명 6.01%	14명 4.95%	2명 0.71%	4명 1.41%	0명 0.00%	72명 25.44%
사서에게 의뢰	17명 6.01%	14명 4.95%	8명 2.83%	8명 2.83%	0명 0.00%	0명 0.00%	1명 0.35%	48명 16.96%
전체	88명 31.10%	82명 28.98%	48명 16.96%	54명 19.08%	4명 1.41%	6명 2.12%	1명 0.35%	283명 100%

* Frequency Missing = 17

〈표 8〉 단일어 키워드 추출에 대한 이해

단일어 키워드 추출에 대한 이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대학원	교직원	교수	전체
오답	73명 24.50%	70명 23.49%	39명 13.09%	43명 14.43%	4명 1.34%	1명 0.34%	1명 0.34%	231명 77.52%
정답	21명 7.05%	16명 5.37%	10명 3.36%	14명 4.70%	0명 0.00%	6명 2.01%	0명 0.00%	67명 22.48%
전체	94명 31.54%	86명 28.86%	49명 16.44%	57명 19.13%	4명 1.34%	7명 2.35%	1명 0.34%	298명 100%

* Frequency Missing = 2

〈표 9〉 복합어 키워드의 OR 조합과 검색에 대한 이해

키워드의 OR 검색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대학원	교직원	교수	전체
오답	65명 21.89%	58명 19.53%	27명 9.09%	28명 9.43%	1명 0.34%	2명 0.67%	1명 0.34%	182명 77.52%
정답	28명 9.43%	29명 9.76%	21명 7.07%	29명 9.76%	3명 1.01%	5명 1.68%	0명 0.00%	115명 22.48%
전체	93명 31.31%	87명 29.29%	48명 16.16%	57명 19.19%	4명 1.35%	7명 2.36%	1명 0.34%	297명 100%

* Frequency Missing = 3

〈표 10〉 복합어 키워드의 AND 조합과 검색에 대한 이해

키워드의 AND 검색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대학원	교직원	교수	전체
오답	60명 20.27%	63명 21.28%	38명 12.84%	32명 10.81%	2명 0.68%	2명 0.68%	1명 0.34%	198명 66.89%
정답	32명 10.81%	24명 8.11%	11명 3.72%	25명 8.45%	2명 0.68%	4명 1.35%	0명 0.00%	98명 33.11%
전체	92명 31.08%	87명 29.39%	49명 16.55%	57명 19.26%	4명 1.35%	6명 2.03%	1명 0.34%	296명 100%

* Frequency Missing = 4

7) SELIS OPAC 시스템을 이용하여 검색에 성공하지 못한 이유

SELIS OPAC 시스템을 이용하여 검색에 성공하지 못한 이유를 분석한 결과 정확한 이용법을 몰라서 122명(44.53%)으로 가장 높게 분석되었다.

8) OPAC 검색방법으로 문헌을 찾지 못한 경우

온라인목록으로 검색을 성공하지 못한 경우, 이용자가 어느 행동을 취하는지 분석한 결

과, 이용자들은 직접서가에서 검색이 125명(44.17%)이고, 그 다음이 온라인 검색을 재실행 하는 72명(25.44%)으로 분석되었다.

9) 단일어 키워드 추출에 대한 이해도

키워드 추출에 대한 이해를 분석한 결과, 전체 298명 중에서 정답자 67명(22.48%), 오답자 231명(77.52%)으로 분석되었다.

10) 복합어 키워드의 OR조합과 검색에 대한 이해도

복합어 키워드의 OR조합과 검색에 대한

이해도를 분석한 결과, 정답자 115명(22.48%), 오답자 182명(77.52%)으로 분석되었다.

11) 복합어 키워드의 AND조합과 검색에 대한 이해도

복합어 키워드의 AND조합과 검색에 대한 이해도를 분석한 결과, 정답자 98명

(33.11%), 오답자 198명(66.89%)으로 분석되었다.

12) 불연산자 사용방법 및 심볼에 대한 이해도

불연산자 사용방법 및 심볼에 대한 이해도를 분석한 결과, 정답자 104명(36.49%), 오답자 181명(63.51%)으로 분석되었다.

〈표 11〉 불연산자 사용 방법 및 심볼에 대한 이해

불연산자 사용방법 에 대한 이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대학원	교직원	교수	전체
오답	62명 21.75%	60명 21.05%	24명 8.42%	31명 10.88%	1명 0.35%	2명 0.70%	1명 0.35%	181명 63.51%
정답	26명 9.12%	22명 7.72%	22명 7.72%	26명 9.12%	3명 1.05%	5명 1.75%	0명 0.00%	104명 36.49%
전체	88명 30.88%	82명 28.77%	46명 16.14%	57명 20.00%	4명 1.40%	7명 2.46%	1명 0.35%	285명 100%

* Frequency Missing = 15

〈표 12〉 키워드 탐색 경험에 따른 키워드 추출의 이해

키워드 탐색 경험에 따른 키워드추출의 이해	경험이 있다.	경험이 없다.	전체
오답	188명 63.09%	43명 14.43%	231명 77.52%
정답	59명 19.80%	8명 2.68%	67명 22.48%
전체	247명 82.89%	51명 17.11%	298명 100%

〈표 13〉 키워드 탐색 경험에 따른 키워드 추출에 대한 이해

Statistic	DF	Value	Prob
Chi-Square	1	1.631	0.202
Likelihood Ratio	1	1.744	0.187
Mantel-Haenszel	1	1.626	0.202

〈표 14〉 키워드 탐색 경험에 따른 연산자 CR에 대한 이해

키워드 탐색 경험에 따른 불연산자의 이해	경험이 있다.	경험이 없다.	전체
오답	146명 49.16%	36명 12.12%	182명 61.28%
정답	101명 19.80%	14명 4.71%	115명 38.72%
전체	247명 83.16%	50명 16.84%	297명 100%

〈표 15〉 키워드 탐색 경험에 따른 연산자 OR에 대한 이해

Statistic	DF	Value	Prob
Chi-Square	1	2.912	0.088
Likelihood Ratio	1	3.018	0.082
Mantel-Haenszel	1	2.902	0.088

* Chi - Square 분석으로 각각 P value 0.202와 0.088/0.883으로 나타나 키워드 탐색 경험의 유무에 따라, 키워드 검색 이해와 연산자 OR, AND 사용에 대한 이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표 16〉 키워드 탐색 경험에 따른 불연산자 AND 사용에 대한 이해

키워드 탐색 경험에 따른 불연산자 AND 사용에 대한 이해	경험이 있다.	경험이 없다.	합계
오답	165명 55.74%	33명 11.15%	198명 66.89%
정답	81명 7.36%	17명 5.74%	98명 33.11%
합계	246명 83.11%	50명 16.89%	296명 100%

〈표 17〉 키워드 탐색 경험에 따른 불연산자 AND 사용에 대한 이해

Statistic	DF	Value	Prob
Chi-Square	1	0.022	0.883
Likelihood Ratio	1	0.022	0.883
Mantel-Haenszel	1	0.022	0.883

〈표 18〉 불연산자 사용여부에 따른 OR, AND 사용에 대한 이해

불연산자 사용 여부에 따른 OR, AND 사용에 대한 이해	경험이 있다.	경험이 없다.	합계
오답	27명 9.51%	154명 54.23%	181명 63.73%
정답	33명 11.62%	70명 24.65%	103명 36.27%
합계	60명 21.13%	224명 78.87%	284명 100%

〈표 19〉 불연산자 사용여부에 따른 OR, AND 사용에 대한 이해

Statistic	DF	Value	Prob
Chi-Square	1	11.549	0.001
Likelihood Ratio	1	11.184	0.001
Mantel-Haenszel	1	11.508	0.001

* Chi - Square 분석으로 P value 0.001로 나타나 불연산자 사용여부에 따라 연산자 (OR, AND)사용에 대한 이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13) 키워드 탐색 경험에 따른 키워드 추출의 이해

14) 키워드 탐색 경험에 따른 연산자 OR에 대한 이해

15) 키워드 탐색 경험에 따른 불연산자 AND 사용에 대한 이해

16) 불연산자 사용여부에 따른 연산자 OR, AND 사용에 대한 이해

4. 결론

4.1 요약

본 연구는 서울여자대학교 온라인목록 시스템인 SELIS OPAC에서, 이용자들의 키워드와 불연산자 이해도에 관하여 아래의 연구문

제를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문제 1) SELIS OPAC 시스템이 처리하는 키워드 추출에 대한 이해도는 어떠한가?

단일어 키워드검색시 키워드가 어디에서 추출된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지에서 1) 서명에서 2) 서명과 주제(분류)에서 3) 전체 목록레코드(서명, 저자, 주제, 출판사)에서 4) 전체 발행물(서명, 색인, 초록, 내용목차)에서의 4가지를 제시한 후 정답은 3번으로, 체크율을 분석하였다. 전체 298명에서 정답자 67명(2.48%), 오답자 231명(77.52%)으로 키워드 추출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도는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문제 2) 키워드 탐색에서 불연산자 OR 사용에 대한 이해도는 어떠한가?

복합어 키워드 검색 시 OR 연산자(예: 한국 OR 경제 OR 역사)를 사용하여 검색하면

〈표 20〉 키워드 추출에 대한 이해

키워드 추출에 대한 이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대학원	교직원	교수	전체
오답	73명 24.50%	70명 23.49%	39명 13.09%	43명 14.43%	4명 1.34%	1명 0.34%	1명 0.34%	231명 77.52%
정답	21명 7.05%	16명 5.37%	10명 3.36%	14명 4.70%	0명 0.00%	6명 2.01%	0명 0.00%	67명 22.48%
전체	94명 31.54%	86명 28.86%	49명 16.44%	57명 19.13%	4명 1.34%	7명 2.35%	1명 0.34%	298명 100%

* Frequency Missing = 2

〈표 21〉 키워드 탐색에서 불연산자 OR 사용에 대한 이해

키워드의 OR 검색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대학원	교직원	교수	전체
오답	65명 21.89%	58명 19.53%	27명 9.09%	28명 9.43%	1명 0.34%	2명 0.67%	1명 0.34%	182명 77.52%
정답	28명 9.43%	29명 9.76%	21명 7.07%	29명 9.76%	3명 1.01%	5명 1.68%	0명 0.00%	115명 22.48%
전체	93명 31.31%	87명 29.29%	48명 16.16%	57명 19.19%	4명 1.35%	7명 2.36%	1명 0.34%	297명 100%

* Frequency Missing = 3

〈표 22〉 키워드 탐색에서 불연산자 AND 사용에 대한 이해

키워드의 AND 검색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대학원	교직원	교수	전체
오답	60명 20.27%	63명 21.28%	38명 12.84%	32명 10.81%	2명 0.68%	2명 0.68%	1명 0.34%	198명 66.89%
정답	32명 10.81%	24명 8.11%	11명 3.72%	25명 8.45%	2명 0.68%	4명 1.35%	0명 0.00%	98명 33.11%
전체	92명 31.08%	87명 29.39%	49명 16.55%	57명 19.26%	4명 1.35%	6명 2.03%	1명 0.34%	296명 100%

〈표 23〉 불연산자 사용방법 및 연산자 심봉에 대한 이해

불연산자 사용방법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대학원	교직원	교수	전체
오답	62명 21.75%	60명 21.05%	24명 8.42%	31명 10.88%	1명 0.35%	2명 0.70%	1명 0.35%	181명 63.51%
정답	26명 9.12%	22명 7.72%	22명 7.72%	26명 9.12%	3명 1.05%	5명 1.75%	0명 0.00%	104명 36.49%
전체	88명 30.88%	82명 28.77%	46명 16.14%	57명 20.00%	4명 1.40%	7명 2.46%	1명 0.35%	285명 100%

* Frequency Missing = 15

〈표 24〉 키워드 탐색 경험에 따른 키워드 검색의 이해

키워드 탐색 경험에 따른 키워드검색의 이해	경험이 있다.	경험이 없다.	전체
오답	188명 63.09%	43명 14.43%	231명 77.52%
정답	59명 19.80%	8명 2.68%	67명 22.48%
전체	247명 82.89%	51명 17.11%	298명 100%

결과는 어떠하겠는가?라는 질문으로 1) 입력한 복합키워드와 동일한 순서로 검색된다. 2) 입력한 복합키워드를 순서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한 문헌이 검색된다. 3) 입력한 복합키워드의 전체는 아니지만 한 단어라도 포함한 문헌이 검색된다. 4) 잘 모르겠다의 4가지를 제시한 후 정답은 3번으로 체크율을 분석하였다. 전체 297명에서 정답자 115명(22.48%), 오답자 182명(77.52%)으로 불연산 OR의 사용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도는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문제 3) 키워드 탐색에서 불연산자 AND 사용에 대한 이해도는 어떠한가?

복합어 키워드 검색 시 AND 연산자(예: 한국 AND 경제)를 사용하여 검색하면 결과는 어떠하겠는가?라는 질문으로 1) 입력한 복합키워드를 모두 포함하고 동일한 순서로 검색된다. 2) 입력한 복합키워드를 모두 포함한 문헌이 순서에 관계없이 검색된다. 3) 입력한 복합키워드의 전체는 아니지만 한 단어라도 포함한 문헌이 검색된다. 4) 잘 모르겠다의 4가지를 제시한 후, 정답은 2번으로 체크율을

분석하였다. 전체 296명에서 정답자 98명(33.11%), 오답자 198명(66.89%)으로 불연산자 AND 사용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도는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문제 4) SELIS OPAC 시스템에서 적용되는 불연산자 사용방법 및 연산자 심볼에 대한 이해도는 어떠한가?

서명이 "희망"이고 저자가 "양귀자"인 경우, 불연산자를 사용하여 명령어 검색을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어느것인가?라는 질문에 1) 서명=희망*저자=양귀자 2) 희망+양귀자 3) 양귀자 AND 희망 4) 양귀자*희망 5) 잘모르겠다. 5가지를 제시한 후, 정답은 1번으로 체크율을 분석하였다. 전체 285명에서 정답자 104

명(36.49%), 오답자 181명(63.51%)로 불연산자사용 및 연산자 심볼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도가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문제 5) SELIS OPAC 시스템에서 키워드 탐색 경험에 따라 키워드 검색 이해도에 차이가 나는가?

키워드 탐색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자와 없는자의 키워드 추출과 연산자 사용의 이해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Chi - Square로 분석한 결과, 각각 P value 0.202와 0.088/0.883으로 나타나 키워드 탐색 경험의 유무가 키워드 추출에 대한 이해와, 연산자 OR, AND사용에 대한 이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표 25〉 키워드 탐색 경험에 따른 불연산자 OR에 대한 이해

키워드 탐색 경험에 따른 불연산자 OR에 대한 이해	경험이 있다.	경험이 없다.	전체
오답	146명 49.16%	36명 12.12%	182명 61.28%
정답	101명 19.80%	14명 4.71%	115명 38.72%
전체	247명 83.16%	50명 16.84%	297명 100%

〈표 26〉 키워드 탐색 경험에 따른 불연산자 AND에 대한 이해

키워드 탐색 경험에 따른 불연산자 AND에 대한 이해	경험이 있다.	경험이 없다.	합계
오답	165명 55.74%	33명 11.15%	198명 66.89%
정답	81명 7.36%	17명 5.74%	98명 33.11%
합계	246명 83.11%	50명 16.89%	296명 100%

〈표 27〉 키워드 탐색 경험에 따른 키워드 추출에 대한 이해

Statistic	DF	Value	Prob
Chi-Square	1	1.631	0.202
Likelihood Ratio	1	1.744	0.187
Mantel-Haenszel	1	1.626	0.202

〈표 28〉 키워드 탐색 경험에 따른 불연산자 OR, AND 사용에 대한 이해

Statistic	DF	Value	Prob
Chi-Square	1	2.912	0.088
Likelihood Ratio	1	3.018	0.082
Mantel-Haenszel	1	2.902	0.088

〈표 29〉 불연산자 사용 여부에 따른 연산자 사용에 대한 이해

불연산자 사용 여부에 따른 연산자 사용에 대한 이해	경험이 있다.	경험이 없다.	합계
오답	27명 9.51%	154명 54.23%	181명 63.73%
정답	33명 11.62%	70명 24.65%	103명 36.27%
합계	60명 21.13%	224명 78.87%	284명 100%

〈표 30〉 불연산자 사용 여부에 따른 연산자 사용에 대한 이해

Statistic	DF	Value	Prob
Chi-Square	1	11.549	0.001
Likelihood Ratio	1	11.184	0.001
Mantel-Haenszel	1	11.508	0.001

연구문제 6) SELIS OPAC 시스템에서 불연산자 탐색 경험에 따라 불연산자 사용방법에 대한 이해도에 차이가 나는가?

Chi - Square 분석 결과, P value 0.001로 나타나, 불연산자 사용여부가 연산자 OR, AND사용에 대한 이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4. 2 제언

최근 온라인목록 이용자 인터페이스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탐색자들은 여전히 이용하기 어렵다고 느끼고 있다. 이것은 온라인목록의 개발이 기능성보다는 표면적인 특징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현재 OPAC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키워드의 사용으로, 질의어를 간단하게

입력하는 것이 가능해진 반면, 이용자들은 그들의 질문을 시스템이 해석 가능한 정확한 구문으로 변환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것은 탐색자들이 목록 데이터베이스 구조의 기본적인 지식과 키워드 탐색시 검색쿼리를 구체화하는데 필요한 색인탐색의 기본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의 OPAC 시스템에서는, 정확한 연산자 사용이 시스템에서 디스플레이 되지 않고 상용시스템에 내장되어 불연산자가 처리되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불연산자를 포함한 질의어에서 탐색어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개념적인 지식과 시스템에서 연산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어의적 지식이 부족하다.

SELIS OPAC 시스템을 연구한 결과에서도, AND연산자가 시스템에 내장되어 자동으

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AND 뿐만 아니라 OR, NOT과 같은 연산자 사용에 익숙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1. 2세대 온라인목록이 이용자의 필요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발전되어 온 것과 마찬가지로, 3세대에서도 온라인 목록을 이용하는 탐색자들의 요구를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2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온라인목록의 이용을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교육이 요구되는 직관적인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용자의 질의어에 대한 행태적인 모형을 기초로 한 시스템의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계 모형은 질의어 처리과정을 보조할 수 있고, 탐색자가 여러 가지 질의어를 입력하면 다중 질의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어휘구조탐색과 부분적 결과 선택이 가능하고, 특별한 지능적인 에이전트의 보조에 의한 탐색을 제공하도록 하여 다른 시스템 요소로도 변환이 가능해야 한다. 많은 연구자들이 온라인목록 설계에 대한 새 모형을 제시하였는데, Ray R. Larson, Jerome McDonough, Paul O'Leary, Lucy Kuntz는 Cheshire II로 차세대 온라인목록 시스템을 제시하였다.

Cheshire II 온라인목록 시스템은 현존하는 온라인목록 기술 및 데이터베이스와 전문검색(full text) 그리고 멀티미디어 정보자원을 포함하는 네트워크 기반으로, 과도한 성장에서 연계를 제공하도록 설계된 것이다. Cheshire II 프로젝트의 주요목적은, 현재 워크스태이

션과 네트워킹 기술을 사용하는 진보된 탐색 특성을 지닌 차세대 온라인목록시스템을 개발하고, 도서관 이용자와 원격네트워크 이용자에게 최소한의 교육을 요구하는 검색성능이 뛰어난 OPAC을 제공하는데 있다(Larson 1996, 196).

둘째, 온라인목록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적합한 교육이나 문헌을, 단계와 형태별로 제공하자는 것이다. 이용자들은 온라인목록에 대한 교육을 원하지만 어떠한 교육형태도, 모든 온라인목록 이용자를 충분히 만족시키지는 못한다. 이용도가 친숙하지 않은 이용자는 교육매뉴얼, 참고 메뉴얼을 원하고, 또 다른 이용자들은 개관과 예시만을 제공하는 짧은 요약문을 원한다. 반면 검색 시스템에 친숙한 숙련된 이용자는, 시스템이 어떻게 특징과 기능을 다루고 있는지 상세한 문헌을 원한다. 또한 관내 이용자보다 원격 온라인목록을 이용하는 즉, 웹 목록(web catalog)의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교육자료도 시스템의 일부로서 온라인되어야 한다(Borgman 1996, 501).

Matthews(Matthews et al. 1983)의 온라인목록 초기연구를 보면 OPAC시스템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이용법을 배우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길 원하지 않는다. 탐색자들의 대부분은 적은 시간의 투자로 이용하기 쉬운 시스템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OPAC에 대한 장기적인 목표는 최소한의 교육이 필요한 직관적인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구본영. 1998. OPAC에 있어서 키워드/불연산자 탐색에 대한 이용자 지식수준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2(4): 249-274.
- 정영미. 1993. 『정보검색론』, 서울: 구미무역출판부.
- Charles R Hildreth. 1997. "The use and understanding of keyword searching in a university online catalog." *Information Technology and Libraries*, no.16: 52-62.
- Christine L. Borgman. 1996. "Why Are Online Catalogs Still Hard to Use?"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no.47: 493-503.
- Joy Tillotson. 1995. "Is Keyword Searching the Answer?"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no.56: 199-206.
- Joan M. Cherry, Nancy J. Williamson, Carol R. Jones Simmons and Xin Gu. 1994. "OPACs in Twelve Canadian Academic Libraries: An Evaluation of Functional Capabilities and Interface Features." *Information Technology and Libraries* no.13: 174-195.
- Rosemary Thone, Jo Bell Whitlatch. 1994. "Patron Online Catalog Success." *College & Research Libraries* no.55: 479-497.
- Diane Nahl, Carol Tenopir. 1996. "Affective and Cognitive Searching Behavior of Novice End-Users of a Full-Text Database."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no.47: 276-286.
- Amanda Spink. 1996. "Multiple Search Session Model of End-User Behavior: An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no.47: 603-609.
- Charles R. Hildreth. 1995. "Online Catalog Design Models: Are We Moving in the Right Direction?" Waington, D.C.: Council on Library Resources.
- Charles R. Hildreth. 1995. "The GUI OPAC: Approach With Caution." *Pulic Access Computer Systems Review* no.5 (<http://info.lib.uh.edu/pr/v6/n5/hild6n5.html>)
- Micheline Hancock-Beaulieu, Margaret Fieldhouse, Thien Do. 1995. "An Evaluation of Interactive Query Expansion in an Online Library Catalogue with a Graphical User Interface." *Journal of Documentation* no.51: 225-243.

Ray R. Larson, Jerome McDonough,
Paul O'Leary and Lucy Kuntz,
1996. "Cheshire II: Designing a
Next-Generation Online Catalog."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no.47(7):
555-67.

SELIS OPAC에 있어서 키워드탐색의 이용과 이해

다음은 본 대학 도서관 온라인목록(컴퓨터 단말기를 이용한 검색)인 SELIS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I. 이용자에 대한 이해

1. 온라인 이용자의 해당 학년이나 소속 부서를 표시해 주십시오

1) 학생 : 1학년 _____ 2학년 _____ 3학년 _____
4학년 _____ 대학원생 _____

2) 직원 (소속 부서) : _____

3) 교수 (소속 학과) : _____

II. 단어(Keyword)검색에 대한 이해

2. 도서관 온라인 목록을 이용할 때 단어(keyword)검색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예 _____ 아니오 _____

3. 단일어 단어검색(예: 경제)시 특정항목(저자, 서명, 출판사등)을 지정하지 않고 검색을 한다면 다음 어느 항목에서 검색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서명에서만 2) 서명과 주제(분류)분야에서

3) 전체목록 레코드에서(서명, 저자, 주제, 출판사 등)

4) 전체 발행물에서(서명, 색인, 내용목차 등)

4. 복합어 단어검색(예: 한국 or 경제 or 역사)시 특정항목(저자, 서명, 출판사등)을 지정하지 않고 검색을 한다면 당신이 입력한 결과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입력한 복합단어와 동일한 순서로 검색된다.(예: 한국 경제 역사)

2) 순서에 관계없이 입력한 복합단어를 모두 포함한 문헌이 검색된다.(예: 경제, 한국, 역사)

3) 입력한 복합단어의 전체는 아니지만 한 단어라도 포함한 문헌이 검색된다.(예: 한국)

4) 잘 모르겠다.

5. 복합어 단어검색(예: 한국 and 경제)시 특정항목을 서명으로 지정하고 검색한다면 당신이 입력한 결과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입력한 복합단어를 모두 포함하고 동일한 순서로 된 문헌이 검색된다.(예: 한국 경제)

2) 입력한 복합단어를 모두 포함한 문헌이 순서에 관계없이 검색된다.(예: 경제, 한국)

3) 입력한 복합단어의 전체는 아니지만 한 단어라도 포함한 문헌이 검색된다.(예: 한국)

4) 잘 모르겠다.

III. SELIS의 명령어 검색(불리언 논리연산자: and, or, not)에 대한 이해

6. SELIS 검색방법의 하나인 명령어 검색에서 불리언논리연산자(Boolean Operator)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 _____ 없다. _____

7. 서명이 "희망"이고 저자가 "양귀자"인 경우 불리언 논리연산자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어느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서명=희망*저자=양귀자
- 2) 희망+양귀자
- 3) 양귀자and희망
- 4) 양귀자*희망
- 5) 잘모르겠다.

8. 불리언 논리연산자를 사용했을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 검색결과는 어떠했습니까?

- 1) 사용 후 검색결과에 더 만족한다.
- 2) 사용 후 검색결과에 만족하지 못한다.
- 3) 사용전이나 사용 후 별 차이가 없다.

9. SELIS사용 후 검색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했습니까?

- 1) 아주만족 2) 만족 3) 보통 4) 불만족 5) 아주 불만족

10. 본인이 SELIS 이용으로 문헌을 찾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SELIS의 정확한 이용법을 몰라서
- 2) 찾고자 하는 자료가 없어서
- 3) 정확한 서지사항(찾고자하는 문헌의 서명, 저자, 출판사등)을 몰라서
- 4) 기타(상세히 기록해주시시오.)

11. 온라인검색 방법으로 문헌을 찾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 1) 카드목록 이용
- 2) 직접서가에서 검색
- 3) 온라인목록 재 검색
- 4) 사서에게 의뢰